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67
----------	------

발의연월일 : 2021. 5. 7.

발 의 자 : 김선교 · 정진석 · 안병길
박대수 · 김예지 · 이철규
김석기 · 윤창현 · 권성동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행정관청에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의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만약 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 해당 어선을 원래의 어업허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됨.

이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

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전단).

법률 제 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경우는”을 “경우와 제27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한정한다).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 ----- ----- ----- ----- -----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경우</div> 와 제27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